

BIBLICAL TEXTS ON POVERTY AND HOMELESSNESS

빈곤과 노숙에 관한 성경구절

Old Testament (구약성경에서)

Gen. 1:26-28

God created all human beings in God's own image. "And therefore everyone is precious in God's eyes. Therefore, homelessness is violation to the image of God. "So God created humankind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므로 그 앞에서 만민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Gen. 12:1-2a

God promised Abraham and Sarah a new home: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이 아부라함에게 집을 약속하시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Gen. 12: 2b-3b

Those who are blessed with homes must bless others: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집없는 남을 축복해야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 12: 2-3)

Gen. 21:14-16

Hagar became homeless: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took bread and a skin of water, and gave it to Hagar, putting it on her shoulder, along with the child, and sent her away. And she departed, and wandered about in the wilderness of Beer-Sheba.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gone, she cast the child under one of the bushes. Then she went and sat down opposite him a good way off, about the distance of a bowshot; for she said, "Do not let me look on the death of the child." And as she sat opposite him, she lifted up her voice and wept.

하갈이 노숙자가 되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 게 주었다. 그는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덩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 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 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Gen. 21: 17- 19

God ended Hagar's homelessness: "God heard the voice of the boy; and the angel of God called to Hagar from heaven, and said to her, "What troubles you, Hagar? Do not be afraid; for God has heard the voice of the boy where he is. Come, lift up the boy and hold him fast with your hand, for I will make a great nation of him." Then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She went,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and gave the boy a drink.

하나님이 하갈의 노숙을 끝내주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Ex. 3:7-8

God ends Israel's Homelessness and promise a new home in the land of Canaan:"Then the LORD said, "I have observed the misery of my people who are in Egypt; I have heard their cry on account of their taskmasters. Indeed, I know their sufferings, and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from the Egyptians, and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to a good and broa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o the country of the Canaanites, the Hittites, the Amor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숙을 끝내시고 가나안의 새로운 집을 약속하신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

Ex. 3:9-12a

God urges us to end homelessness for others. God will go with us:
하나님은 우리더러 남의 노숙을 끝내라고 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Lev. 19: 9-10

God commands us to care for the poor and aliens: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Lev. 19: 33-34

God commands Israel to care for the foreigners:
하나님은 이방인을 돌보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신다:

Lev. 25:8-15

Jubilee is ending homelessness:

쥬빌리(Jubilee) 는 노숙근절이다:

Lev. 25: 23

The land shall not be sold in perpetuity, for the land is mine; with me you are but aliens and tenants.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레 25:23)

Deut. 6:10-14

God commanded Israel to remember God when they move into a new home in Canaan: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새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Deut. 8: 18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alth, so that he may confirm his covenant that he swore to your ancestors, as he is doing today.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Deut. 15: 7-11

God commands Israel to care for the homeless when they move into a new home in Canaan: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집에 들어갈 때 가난한 노숙자들 돌보라고 하셨다:

Deut. 24:14-15

Ending homelessness means pay a proper wages:

노숙방지는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이다:

Ps. 24: 1:

The earth is the LORD's and all that is in it, the world, and those who live in it;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Ps. 140: 12

The LORD maintains the cause of the needy, and executes justice for the poor.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Prov. 1:19:

Such is the end of all who are greedy for gain; it takes away the life of its possessors.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

Prov. 14: 31

Those who oppress the poor insult their Maker, but those who are kind to the needy

honor him.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잠 14:31)

Prov. 19: 17

Whoever is kind to the poor lends to the LORD, and will be repaid in full.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Prov. 28: 27

Whoever gives to the poor will lack nothing, but one who turns a blind eye will get many a curse.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체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Is.1: 15-17

Prayer has to do with ending homelessness. 기도는 노숙근절과 관계가 깊다:

“When you stretch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oing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scue the oppressed, defend the orphan, plead for the widow.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Is. 6: 8:

“Whom shall I send, and I said, ‘Here I am; send me:’ ”

"내가 누구를 보낼까 ?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것인가 ?"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Is. 11:6-9

Ending homelessness is shalom-making: 노숙 근절은 평화만들기 이다.

The wolf shall live with the lamb,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of the asp,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its hand on the adder's den. They will not hurt 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결에서 장난하고, 젓팬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마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Is. 58: 6-11

Fasting has to do with ending homelessness.

금식은 노숙 근절과 관계가 깊다.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injustice, to undo the thongs of the yoke,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your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the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kin? Then your light shall break forth like the dawn, and your healing shall spring up quickly; your vindicator shall go before you,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your rear guard. Then you sha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shall cry for help, and he will say, here I am. If you remove the yoke from among you, the pointing of the finger, the speaking of evil, if you offer your food to the hungry and satisfy the needs of the afflicted, then your light shall rise in the darkness and your gloom is like the noonday. The LORD will guide you continually, and satisfy your needs in parched places, and make your bones strong; and you shall be like a watered garden, like a spring of water, whose waters never fail.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들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네빛이 새벽 햇살 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신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영 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 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Is. 61:1-3

Receiving the Spirit of the Lord has to do with ending homelessness:

성령을 받는일은 노숙 근절과 관계가 깊다.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oppressed,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lease to the prisoner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to provide for those who mourn in Zion--to give them a garland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antle of praise instead of a faint spirit.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to display his glory.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

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어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Jer. 7:5-7

God clearly states what will bring Israel home in God:

무엇이 이스라엘의 노숙을 끝낼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 하신다.

For if you truly amend your ways and your doings, if you truly act justly one with another, if you do not oppress the alien, the orphan, and the widow, or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go after other gods to your own hurt, then I will dwell with you in this place, in the land that I gave of old to your ancestors forever and ever.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곳에서 죄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 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Jer. 7: 13-15

What causes our homelessness?

무엇이 이스라엘을 노숙자로 만드는가?

And now, because you have done all these things, says the LORD, and when I spoke to you persistently, you did not listen, and when I called you, you did not answer, therefore I will do to the house that is called by my name, in which you trust, and to the place that I gave to you and to your ancestors, just what I did to Shiloh. And I will cast you out of my sight, just as I cast out all your kinsfolk, all the offspring of Ephraim.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Jer. 8:18

God mourns for the homelessness of many people:

하나님이 백성들의 노숙을 슬퍼하신다.

My joy is gone, grief is upon me, my heart is sick.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를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Jer. 8: 22-9:1

Health care and homelessness are intrinsically related to each other:

건강 요법과 노숙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Jer 9: 23-24 (NIV)

23 Thus says the LORD: Do not let the wise boast in their wisdom, do not let the mighty boast in their might, do not let the wealthy boast in their wealth; ²⁴but let those who boast boast in this, that they understand and know me, that I am the LORD; I act with steadfast lov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says the LORD.

Jer. 29: 7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where I have sent you into exile, and pray to the LORD on its behalf, for in its welfare you will find your welfare.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Ezk. 37: 1-14

God promised to end homelessness for Israel from the Babylonian exile: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노숙을 끝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Amos 5: 21-25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정의가 강물같이 흐른다.

Micah. 6: 6-8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bow myself before God on high?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rams, with ten thousands of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told you, O mortal,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만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New Testament (신약성경에서)

Luke 2:7:

Jesus was born homeless: 예수는 노숙자로 탄생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bands of cloth,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Matt. 2:13-15

Jesus grew up his infancy as the homeless in foreign Egypt.

주님은 유년기를 애굽에서 노숙자로 자랐다:

Now after they had lef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about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Then Joseph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by night, and went to Egypt, and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had been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Out of Egypt I have called my son."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네게 일어줄 때까지 그 곳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치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g)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Matt. 8:20

Jesus was homeless while he was doing ministry.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노숙자이셨다: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Matt. 27:46

Jesus died homeless on the cross: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노숙자로 숨을 거두셨다.

And about three o'clock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하는 뜻이다.

Matt. 4:12-17

Jesus came to end homelessness of people in Galilee streets.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노숙근절을 위해 오셨다.

Now when Jesus heard that John had been arrested, he withdrew to Galilee. He left Nazareth and made his home in Capernaum by the sea, in the territory of Zebulun and Naphtali, so that what had been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might be fulfilled: "Land of Zebulun, land of Naphtali, on the road by the sea, across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who sat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for those who sat in the region and shadow of death light has dawned."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oclaim,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Matt. 14:13-21 (Mark 6: 30-44) (Luke 9:10-17) (John 6: 1-14)

Jesus' feeding of hungry crowd of five thousand:
 예수께서 굶주린 민중 5천명을 먹이시다.

Matt. 19:16-21

Salvation has to do with ending homelessness: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숙근절과 관련이 깊다:

Someone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hat good deed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Jesus said to him, "If you wish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Matt. 22:36-40

The whole Bible can be summarized in the two verses. Love our God and love our neighbor: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두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Teacher, which commandment in the law is the greatest?"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t and first commandment. And a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사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Gal. 5: 14; 례 19:18).

Matt. 25: 35-36, 40

We must see Jesus in the face of the homeless.

우리는 노숙자 얼굴에서 주님을 봐야 한다: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I was naked and you gave me clothing, I was sick and you took care of me, I was in prison and you visited me. Just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who are members of my family, you did it to me.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Mark 2:15-17

Jesus ate dinner with sinners and homeless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다.

And as he sat at dinner in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so sitti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When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saw that he was eating with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said to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have come to call not the righteous but sinners."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Luke 4:18-19

Jesus' Good News to the poor is ending poverty and homelessness:

주님의 기쁜소식은 노숙 근절이다.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Luke 6: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lap; for the measure you give will be the measure you get back."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Luke 8:43-48

Jesus ended emotional/spiritual homelessness of hemorrhaging woman.
주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성의 정신적, 영적 노숙을 끝내 주시다.

Now there was a woma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hemorrhages for twelve years;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she had on physicians, no one could cure her.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clothes, and immediately her hemorrhage stopped. Then Jesus asked, "Who touched me?" When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crowds surround you and press in on you."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notic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me."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b)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 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Luke 10:29, 36-37

Story of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But wanting to justify himself,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the robbers?" He said, "The one who showed him mercy." Jesus said to him, "Go and do likewise."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Luke 12: 33-34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alms. Make purses for yourselves that do not wear out, an unfailing treasure in heaven,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지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썩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Luke 13: 10-13

Jesus ended homelessness of a bent-over woman through healing:

Now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And just then there appeared a woman with a spirit that had crippled her for eighteen years. She was bent over and was quite unable to stand up straight.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over and said,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ailment." When he laid his hands on her, immediately she stood up straight and began praising God.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 났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Luke 14 : 13-14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and the blind. And you will be blessed, Because they cannot repay you,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Luke 16:19-29

A rich man and beggar. 부자와 거지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who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And at his gate lay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who longed to satisfy his hunger with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would come and lick his sores.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away by the angels to be with Abraha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In Hades, where he was being tormented,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He call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in agony in these flames.'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during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in like manner evil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Besides all this, between you and us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so that those who might want to pass from here to you cannot do so, and no one can cross from there to us.' He said, 'Then, father, I beg you to send him to my father's house--for I have five brothers--that he may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into this place of torment.'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they should listen to them.'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f)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살아 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

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거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르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눅 18: 18-22 - 부자청년

Luke 19:5-9

Ending homelessness for Zacchaeus: 주님께서 삭개오의 노숙을 끝내주시다.

A man was there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He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hort in stature.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tree to see him, because he was going to pass that way.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hurried down and was happy to welcome him. All who saw it began to grumble and said,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one who is a sinner." Zacchaeus stood there and said to the Lord, "Look, half of my possessions, Lord,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as much." Then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하였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Luke 24: 28- 35

When hospitality is extended, their eyes were open and recognized Jesus: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may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John. 4:9-26

Jesus ended homelessness for the Samaritan woman:
 주님은 사마리아 여성의 영적인 노숙을 끝내주시다.

John 8:1-11

Jesus ended the homelessness of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주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성의 영적인 노숙을 끝내주시다.

John 10:14-16

The good shepherd brings lost (homeless) sheep home: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시다.

John 15: 12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John 20: 18

Mary Magdalene went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

Acts 3: 1-8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at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And a man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in. People would lay him daily at the gate of the temple called the Beautiful Gate so that he could ask for alms from those entering the temple.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he asked them for alms. Peter looked intently at him, as did John, and said, "Look at us." And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stand up and walk." And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and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s were made strong. Jumping up, he stood and began to walk, and he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오후 세 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앓은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앓은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그 앓은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뵈며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하고 앓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Acts 4:32-35

For the first century believers grace meant sharing their possessions with the poor: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는 축복을 나누는 것이었다.

Now the whole group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 one claimed private ownership of any possessions, but everything they owned was held

in common.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gave their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reat grace was upon them all. There was not a needy person among them, for as many as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and brought the proceeds of what was sold. They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each as any had need.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Acts 20: 35

In all this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by such work we must support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of the Lord Jesus, for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Rom. 13:8-10

Owe no one anything, except to love one another; for the one who loves another has fulfilled the law.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covet"; and any other commandment, are summed up in this wor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does no wrong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하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출 20:13-15,17,신 5:17-19,21. 레 19:18)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Romans 15:7

Welcome one another, therefore, just as Christ has welcomed you, for the glory of God.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I Cor. 3:16-17

St. Paul honored people as God's temple: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that person. For God's temple is holy, and you are that temple.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 Cor. 9: 6-9

The point is this: the on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the on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Each of you must give as you have made up your mind,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And God is able to provide you with every blessing in abundance, so that by always having enough of everything, you may share abundantly in every good work. As it is written, "He scatters abroad, he gives to the poor;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a)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b) 의로우심이 영원하다"한 것과 같습니다. (시 112:9)

Gal. 5: 14c

For the whol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men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att. 22:36-40; Lev. 19:18).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레 19:18).

Col. 3: 5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in you is earthly: fornication,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is idolatry).**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1 Tim. 6:10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and in their eagerness to be rich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ins.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1 Tim. 6: 17-19

As for those who in the present age are rich, command them not to be haughty, or to set their hopes on the uncertainty of riches, but rather on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They are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generous, and ready to share, thus storing up for themselves the treasure of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so that they may take hold of the life that really is life.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Heb. 13: 2

Do not neglec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by doing that som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it: [Gen. 18: 1-15]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낫선 손님을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Heb. 13: 3

Remember those who are in prison, as though you were in prison with them; those who are being tortured, as though you yourselves were being tortured.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Heb. 13: 1-3

Let mutual love continue. Do not neglec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by doing that som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it. Remember those who are in prison, as though you were in prison with them; those who are being tortured, as though you yourselves were being tortured.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James 1: 15:

When that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that sin, when it is fully grown, gives birth to death.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James 1 : 25b

Being not hearers who forget but doers who act--they will be blessed in their doing. 율법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James 2: 5-6

Listen,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Has not God chosen the poor in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to be heirs of the kingdom that he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oppress you? Is it not they who drag you into court?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James 2 : 14 -17

What good is it, my brothers and sisters, if you say you have faith but do not have works? Can faith save you? If a brother or sister is naked and lacks daily food, and one of you says to them, "Go in peace; keep warm and eat your fill," and yet you do not supply their bodily needs, what is the good of that?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 works, is dead.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James 2 : 26-27

Just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also dead.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 works, is dead.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James 5:1-5

Warning to the rich. 부자에게 주는 경고

Come now, you rich people, weep and wail for the miseries that are coming to you. Your riches have rotted, and your clothes are moth-eaten. Your gold and silver have rusted, and their rust will be evidence against you, and it will eat your flesh like fire. You have laid up treasure for the last days. Listen! The wages of the laborers who mowed your fields, which you kept back by fraud, cry out, and the cries of the harvesters have reached the ears of the Lord of hosts. You have lived on the earth in luxury and in pleasure; you have fattened your hearts in a day of slaughter.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썩었고, 여러분의 옷가지는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I John 3:18

Little children, let us love, not in word or speech, but in truth and action.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QUOTES FROM SCHOLARS

My work with homeless peopl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came from the conviction that I was modeling after Jesus Christ, who accepted, welcomed, forgave, healed, fed, comforted, sat, ate, talked, and walked with all the sick, discouraged, abandoned, and marginalized women, men, widows, children and orphans in the society of his own day.

My speaking tour to spread the good news of the “Ending Homelessness Initiativ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tarted with the same conviction.

God created all human beings equally in God’s own image. Therefore, every human being carries the image of God in them. In God’s eyes every person is precious and valuable. God started out as a host by creating the world as our home and blessed and welcomed us as guests to live there in harmony. We are the temple where God’s Spirit dwells. Therefore, hunger and homelessness are violence to the image of God and to the God’s temple and violation to God’s plan. Therefore, ending homelessness is what God wills.

God in Old the Testament is presented as a liberating God who could not sit resting in heaven watching human misery, but had to come down to end Israel’s homelessness in Egyptian bondage and to lead them to a new home, the promised land. This God also ended the homelessness of Israel in Babylonian exile and brought them back home to their homeland.

Jesus, who was born, raised, worked and died homeless, welcomed, fed the hungry, and healed all the sick who were rejected, abandoned and despised in their own society. The Bible tells people to help the poor as frequently as every 16 verses in the New Testament, every 10 verses in the Gospel and every 7 verses in the Gospel of Luke.

In the sermon known as Jesus’ first sermon, as Luke reports, the purpose of his ministry was to bring good news to those who suffer in poverty and hunger,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in physical and emotional prison, to help recover sight to those who could not see any hope and future, and to let all th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oppressed go free, and finally bring the year of the Lord, which meant jubilee (Luke 4:18-19).

Robert MacAfee Brown would call “jubilee” as a “concrete socio-political-economic restructuring of relations among the people of God.”

Gordon Cosby, founder of the Church of the Savior, said “Jubilee, in its original Biblical meaning, focused on the outsider – the weak, the defenseless, the outcasts.

Thus the ones outside could come inside and are forever at home.”

This means we all need to experience shalom, salaam, peace together. **Professor Walter Brueggemann**, Old Testament scholar, understands Shalom as comprehensive well-being, and harmony in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d with each other.

It means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health and wholeness, and material security and freedom from want and fear. Shalom is not just for isolated, insulated individuals. It is rather security and prosperity granted to a whole community- young and old, rich and poor, women and men, and powerful and weak. Therefore, Shalom/Salaam resists all division, hostility, fear, greed, misery, war, poverty and homelessness.

For Prof. Walter Brueggemann, Jubilee means “sorting out what belongs to whom and return it to them”.

In Matt. 19: When a young rich lawyer came to Jesus asking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urged him to sell all he had, give it to the poor and follow him.” Giving up our possessions precedes following Jesus.

Martin Luther makes this point clear; “the wealth I own is not for me, but for the poor; the knowledge I own is not for me, but for the ignorant; the wisdom I own is not for me, but for the foolish; the freedom I own is not for me, but for the oppressed.”

One scholar said that “everything and everybody belongs to God. The air we breath, the water we drink, the wonder of life itself, the planet we live on, the universe –we brought none of these things into being. The love of God, the gift of Jesus Christ, forgiveness of our sins, the call into Christian community,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eternal life – none came from us. Each is a gift to us from God which we enjoy. We came into the world with

nothing, and we will leave with nothing. When we die, everything we have accumulated and everything we think ours will stop being ours and will pass on to somebody else. They belonged to somebody else before us and they will belong to others after us.”

Albert Schweitzer said "the purpose of life is to serve and to show compassion and the will to help others. Only then have we ourselves become true human beings."

Martin Luther King, Jr. said,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Dr. Buchanan, the former moderator of PC, USA said “Mission is why we are here,” and “The church exists for the world.” He quotes Theologian Emil Brunner saying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fire exists by burning.”

In the sermon known as his last one as Matthew witnesses, Jesus tells us about the deadly consequence when we DO or DO NOT help the poor, hungry, sick, imprisoned and homeless: Those who help them will be blessed into eternal life and those who didn't help will be punished into eternal fire because what we did to the least of these needy means we did it to Jesus himself. What we didn't do means we DIDN'T do it to Jesus himself (Matt. 25: 35).

Our Bible starts with God's creation of the world as our home to live in and ends with our New Home, the New Jerusalem where people can live with no worry, no tears and no pain. There is no temple because God's presence is everywhere. There is no need of sun or moon to shine on it because the glory of God and the light of Jesus shines on the whole earth. Gates in the New Jerusalem will never be shut by day – and there will be no night there, because New Jerusalem streets are wide open and safe. People freely come and go, and unharmed and welcomed (Rev. 21:22-25).

Prophet Jeremiah said in 29: 7, “the welfare of the city is our welfare.” This means that until the city is well, nobody is well. We all have to be well together. Therefore, Christians are called to the mission of ending homelessness.

(Details may be found in Jubilee Manual P. 43-58)